

모든 세대가 어우러진 교회가 되기 위한

10가지 방법



주일학교, 중고등부, 성인 교육 등 연령별로 나뉜 사역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러나 각 부서와 사역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진 더 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더욱 풍성해지고, 공동체 전체가 건강할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.

이제 소개할 10가지 아이디어를 참고하여, 여러분의 교회 상황에 맞게 세대 간의 배움, 예배, 봉사가 더욱 활발하게 이어지도록 해보세요. 더 많은 자료는 crcna.org/FaithFormation/toolkit의 'Intergenerational Church toolkit(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툴킷)'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1. 신앙 이야기를 함께 나누세요.

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세요. 예를 들어,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중 '이달의 시편'이라는 시간을 마련해, 한 교인이 시편을 읽은 후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3분 이내로 나누기도 합니다.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crcna.org/FaithFormation/toolkits의 'Faith Storytelling toolkit(신앙 이야기 툴킷)'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2.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를 계획해 보세요.

예배는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안에서 이뤄집니다. 다음과 같은 질문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예배에 더 잘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.

- 우리의 설교와 예배 형식은 10세 어린이부터 90세 어르신까지, 모두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을까요?
- 청각적인 예배 요소를 보완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시각 예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
- 모든 세대의 회중이 예배 인도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?

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Faith Formation Ministries의 '[10 Ways to Strengthen Intergenerational Worship](http://crcna.org/10Ways)(세대를 아우르는 예배를 위한 10가지 방법)'을 참고해 보세요.

3.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존중하세요.

신앙생활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느끼는 부끄러움입니다. "왜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하지 못할까?", "왜 나는 저 사람처럼 봉사하지 못할까?"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르게 지으셨고,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. 공동체 안에서 신앙 성장을 돋는 리더로서,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존중하고 격려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.

4. 리더십을 세우고 키워가세요.

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 모두의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실천해 보세요. 첫째, 용기, 진실함, 소망처럼 리더십의 기반이 되는 성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둘째,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분별하여 그것을 키우고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.

5.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세요.

"중고등부에서 더 중요하게 다뤘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?" 풀려 청소년 연구소는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고, 가장 많은 학생들이 "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"이라고 답했습니다.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, 소그룹 토론이나 세대 간 기도 파트너십, 인터뷰 프로젝트 같은 방식으로 깊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.

6. 신앙의 기초를 함께 탐색해보세요.

'Our Building Blocks of Faith toolkit(신앙의 기본 요소 툴킷)'(crcna.org/FaithFormation/toolkits)은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신앙의 핵심 요소 네 가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

- 나는 소속감을 느낀다.
- 나는 알고 이해한다.
- 나는 소망이 있다.
- 나는 부름받았고 준비되었다.

이 온라인 툴킷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 요소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, 30-60세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반면, 젊은 세대와 더 나이 든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평가는 교회 내 세대 간 특성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7. 세대를 잇는 마음을 몸소 드러내세요.

한 교회에서 12세 어린이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,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우리 목사님은 제 이름을 아세요!" 이처럼 세대 간의 통합은 교회의 리더십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. 목사, 장로, 집사 등 교회의 리더들이 예배 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며 교류하고,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다양한 세대를 고려하며 섬김의 리더십 자세를 가질 때, 전 세대를 통합하는 사역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.

8. 함께 봉사하세요.

한 노회의 열린 모임에서 세대 간 소통에 대해 나누며, 참가자들에게 가장 좋았던 세대 간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. 이때 두 명의 10대가 손을 들고, 홍수 피해 지역에서 재난 구호팀으로 봉사하던 중 교회 어르신 두 분과 함께 보낸 주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"평소에 이분들을 교회에서 자주 봤었지만,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분들인 줄 몰랐어요." 이처럼 봉사 활동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을 끌어냅니다. 또한, 손으로 함께 일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내고, 공동체 안에 풍성한 축복을 흘러내게 합니다.

9. 지혜롭게 실천해 보세요.

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시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실험적인 접근이 따르게 됩니다. 이런 시도들을 계획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.

- 누가 새로운 시도를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?
-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어떻게 분별하고, 서로를 어떻게 격려하며 인내할 것인가?
- 이 시도의 과정을 회중들에게 어떻게 솔직하면서도 희망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까?

세대 간 소통 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, 커넥터(crcna.org/thrive/regional-connectors)에게 문의해 보세요.

10. 핵심 리더를 세우세요.

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의 가치를 실현하려면, 이를 중심에서 이끌어 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. 세대 간 소통을 교회의 우선순위로 삼으려면, 그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책임과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.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예를 들어, 장로, 신앙 교육 팀의 일원, 혹은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. 그들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?

이 자료는 Thrive 교회사역부에서 제작했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역 지원이 필요하시면, 언제든지 thrive@crcna.org로 연락 주세요.

810731

